2023. 12. 13.(수) 조간용
이 보도자료는 2022년 12월 12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동행·매력 특별시 서울 SEOUL MY SOUL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

녹색에너지과	녹색에너지과장	김재웅	2133-3550
	에너지정책팀장	정삼모	2133-3552
기후환경정책과	기후환경정책과장	김정선	2133-3510
	기후환경정책팀장	정형철	2133-3512
	협치실천팀장	정금자	2133-3660
친환경건물과	친환경건물과장	이주영	2133-3590
	친환경건물정책팀장	이홍석	2133-3592
	민간건물효율화팀장	이경옥	2133-3575

사진없음 ▣ 사진있음 □ 매수 : 7매

서울시, 시민·공공 다 함께 하는 '겨울철 에너지 종합대책'

- 에너지 사용 늘어나는 겨울철 맞아 오는 3월까지 에너지 절약위한 대책 추진
- 시민·공공분야 함께 에너지 절약문화 조성… 시민 참여 절약 프로그램도 확대
- 건물 부문 에너지효율화 공사비 융자지원, 에너지 취약계층 위한 지원 등 지속
- 시 “한파 속 에너지 사용 급증 막기 위해 시민, 민간기관의 관심과 동참 당부”

□ 최근 국제적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. 시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서울 시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70%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 부문 에너지 효율화에도 팔을 걷고 나선다.

□ 서울시는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 겨울을 맞아 오는 3월까지 ‘겨울철 에너지 종합대책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○ 서울지역 에너지소비량은 ′16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국내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경제개발협력기구(OECD) 국가 평균 대비 높은 수준으로,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.

※ 국내 1인당 에너지소비량(2020년 기준) 5.4toe[1]로 경제개발협력기구 주요 가입국 영국 2.3toe, 이탈리아 2.5toe, 프랑스 3.2toe 대비 높은 수준(국가에너지통계연보)

<에너지 취약계층 위해 LED 조명·친환경 보일러 교체,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지속>

□ **먼저 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교체,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,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을 지속해 나간다.**

□ **‘약자와의 동행’ 정책에 따라 시민 · 기업(단체)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조성된 ‘서울에너지플러스 한파지원사업’ 등을 활용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엘이디(LED) 조명 · 친환경 보일러 설치, 난방용품 등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.**

○ ‘서울에너지플러스’는 시민 · 단체 · 기업 등의 후원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 ′15~′22년 총 135억 원을 모금해 약 41만 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.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올겨울에도 약 2.2만 취약계층 가구에 약 8.5억 원의 방한용품(난방텐트 · 겨울의류 등)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.

○ 또 올해 저소득층 약 4,100가구에 약 27억 원 규모의 고효율 엘이디(LED) 조명을 무상 보급하고, 105억 원 규모(약 9만 2천대)로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(저소득층 60만원)하는 사업도 지속한다.

---

1) 1Toe(석유환산톤) :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(Cal)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

※노후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 교체 시 연간 최대 44만 원까지 난방비 절약(한국환경산업기술원)

□ **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창호에 덧유리·방풍재를 설치해 주는 '고효율 창호 간편 시공'도 계속 지원하고, 저효율 창호나 조명을 고효율 기자재로 교체할 경우 비용의 최대 70%(최대 5백만 원)를 지원한다.**

○ 노후주택 창호에 고효율 덧유리나 방풍재를 설치하면 겨울철 에너지 손실의 70%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, 올해 시는 약 800세대에 대해 시공을 지원('23.10월 기준)했다.

※ 겨울철 에너지 손실의 70%가 창문을 통해 발생, 창문 단열효과로 실내온도 2~4℃ 상승 (한국건설기술연구원)

○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은 공시지가 3억 원 이하, 15년 이상 노후주택 거주자에게 저효율 창호 및 조명을 고효율 기자재로 교체 시 공시비의 70% 이내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.

□ **아울러 시는 동절기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난방에너지원**(전기, 도시가스, 연탄 등)**을 선택적으로 구입·이용할 수 있는 '에너지바우처'와 취약계층 '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'와 관련하여 지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자치구·유관기관 등과 함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선다.**

○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 중인 '에너지바우처'는 동절기(10~4월)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실물 바우처로, 가구별 24.8만 원(1인) ~ 59.7만 원(4인)이 지원되며,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동절기(12~3월) 취약계층에게 월 18,000원 ~ 148,000원의 요금할인을 지원하고 있다.

<시민·공공분야와 '에너지 절약문화' 조성… 시민참여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확대, 지속>

□ **서울시는 시민, 공공분야와 함께 에너지 절약 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앞장선다. 에너지 절감에는 시민의 참여가 절대적인 만큼 ▲통합 에코마일리지 ▲도시가스앱-에코마일리지 연계 서비스 ▲에너지 절약 미션(주민DR) 등 '에너지 절약 프로그램'을 확대, 지속 운영한다.**

○ 통합에코마일리지는 건물(전기 · 수도 · 도시가스), 수송(승용차 주행거리) 부문 에너지 절감 실적에 따라 문화상품권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프로그램('23년 기준 가입자수 약 250만명)으로, '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누적 105만toe를 절감,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7,092억 원의 에너지 수입 대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전국 최초 마일리지로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는 '도시가스앱-에코마일리지 연계 서비스'는 민간의 도시가스 앱과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를 연계한 프로그램('23년 기준 가입자수 약 117만명)으로 연 15억원의 난방비 절감효과가 기대되며, 피크 시간대 전력 절감 시 회당 1천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에너지 절약 미션(주민DR)은 '22년 4,500세대→'23년 21,000세대로 확대 운영한 바 있다.

□ **시는 시청사와 산하 · 소속기관 등 공공청사 실내 온도를 18℃ 이하로 유지하고 실내조명 30% 소등, 승강기 홀 · 짝수 격층 운행 등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노력도 지속한다. 매주 수요일은 '에너지의 날'로 지정해 불필요한 전자우편 삭제, 대기전력 차단, 배터리 절전 등 직원들의 에너지 절약 실천도 생활화한다.**

□ **아울러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업무환경을 개선해 나간다. 시는 2023년부터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을 시행, 올해 1월~7월 기준 종이 사용량 6.6%(113만 장), 프린터 유지비용 2.2%(1천 6백만 원)을 절감한 바 있다.**

○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′24년에는 청사 종이 사용량을 50% 절감할 계획으로, 목표 달성 시 연간 약 10억 원의 예산과 105톤의 CO_2 배출량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<온실가스 배출량 큰 '건물부문 에너지 효율화', 단열재 교체 등 공사비 무이자 융자>

□ **한편 서울 시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1%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 에너지 효율화 사업도 집중 추진, 건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시공비를 무이자 융자해 주는 '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(BRP)'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.**

○ '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'은 사용 승인 후 10년이 넘은 노후 건물에 단열창호, 단열재 교체, 엘이디(LED) 조명 설치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비의 100%를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규모를 대폭 확대, 220억원(′22년 109억 원, 500건 →′23년 220억 원, 800건)을 지원했다.

□ **또 안심집수리 사업 대상자 중에서 고효율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, 고효율 자재 시공비의 10%를 추가 지원하는 안심집수리 사업 연계 '에너지 효율 개선 추가 지원사업'도 지속한다.**

○ 안심집수리사업은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열, 창호, 방수 등 성능개선 집수리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심집수리

사업 지원대상자가 창호, 단열 등을 고효율 기자재로 교체 시 시공비의 10%,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.

□ **시는 오는 2월까지 시 산하 공공기관 건물 약 100개소에 대해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, 절약을 유도하고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26.4%를 차지('22년 기준)하고 있는 '에너지 다소비건물' 300개소의 난방온도 전수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.**

○ 시는 에너지 다소비건물이 평균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추세('17년 5.81천toe→'21년 6.25천toe)임을 감안해 실내 온도 20℃ 이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자발적 실내 온도 준수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.

□ **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"겨울철 다가올 한파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부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, 에너지 절약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"이라며 "에너지 절약을 위한 난방·온수 온도 낮추기, 불필요한 조명 소등하기 등 시민 여러분과 민간기관 등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"고 말했다.**

붙 임 1 공공청사 에너지 절감 시행 사항

부 문	조 치 사 항
난 방	실내온도 준수(18℃ 이하), 비전기식 난방기 가동 기관(20℃ 이하) *학교・도서관・의료・아동・노인시설, 대중교통・문화체육시설 등은 적정온도 자율 관리
	한파특보 발령 지역의 공공기관 및 건물노후화로 실내온도 편차가 큰 공공기관(20℃ 이하)
조 명	실내조명 30% 소등
	지하주차장 조명 50% 소등
	LED 교체
	복도 등 사무공간이 아닌 곳은 부분소등
	센서로 자동 점·소등하기
	낮에는 창측조명 소등하고 자연채광 이용
	회의실, 화장실 등 간헐적 사용공간은 미사용시 소등 철저
	점심시간 일괄소등
승 강 기	회생제동장치 설치
	홀짝수 격층 운행
	운휴시 내부조명 자동점멸
	승강기 대신 계단이용
	출·퇴근시간 외 엘리베이터 승강기 중단
공 조	공조설비 필터 청소
기 타	대기전력 차단(TV, 셋톱박스 등)
	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
	냉온정수기, 비데에 스마트콘센트 설치(타이머)
	고효율사무기기 사용(5등급 → 1등급)
	컴퓨터 절전기능 사용
	에너지절약 교육시행
	미화 작업 시작시간 조정(ex 6:30 → 7:00)